

1.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가 살아난 것이 차이가 있나요?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사망한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후에 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죽음을 잠시 벗어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즉, 나사로의 회복은 일시적이며, 죽음의 최종적인 극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부활(Resurrection)”이 아닌 “소생(Revive)”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적이지만, 인간이 경험할 최종적 생명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신령한 몸(spiritual body)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 15:42-44).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연속성과 신령한 새로운 차원을 동시에 갖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 육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 상태를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몸이 가지는 영적·신비적 속성과 현실적 연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부활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이전 육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죽음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앙적 희망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거 없이는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없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궁극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 남긴 영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죽음을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잠시 죽음을 이겼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힘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세상 속에서, 부활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순간을 기억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망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적이 주는 최고의 의미이며,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 삶에서 "죽음처럼 끝난 것 같았던 일"이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느꼈나요?
→ _____
-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와닿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죽음이나 큰 상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내 마음에 어떤 힘을 주는지 나눠볼 수 있을까요?
→ _____

-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의 선택, 행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_____

-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내 마음 속에서 새롭게 희망이나 용기가 생기는 경험이 있다면 나눠볼 수 있을까요?

→ _____

- 최근 내가 '회복이 필요했던 관계'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활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예: 격려하기, 용서하기, 다시 시작하도록 돋기 등)

→ _____

-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기도문을 부분별로 나누어 한 사람씩 읽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과 절망, 상실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살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부활의 빛을 따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죽음과 절망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